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업을 나갈 길은?

농진청, 한림원탁토론회

디지털 농업기술
안정적인 식량 공급
고부가 바이오기술 등
농업위기 대응 '주목'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식품 산업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162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림원탁토론회는 1996년부터 시작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책토론회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들에 대한 석학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농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적, 정책적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식품 산업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162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과 정진호 부원장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 전환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두호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R&D 방향으로 디지털 농업기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고부가 바이오기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작품표현체 연구동, 농업유전자원센터, 사계절하우스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 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생존 전략과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을 통해 사업이 확대돼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성화와 사업에 실패한 (예비)창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스타트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진원, 코로나19 극복

재도전 성공 패키지 추가 모집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20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들을 모집한다.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창업진흥부에서 시행하고 경진원이 전담하는 사업으로,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을 통해 사업이 확대돼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성화와 사업에 실패한 (예비)창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스타트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진원은 2018년부터 호남권역에서 유일하게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51명의 재창업자들이 재기에 성공했다. 올해도 지난 6월에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 40명을 선발해 사업화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 중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29명의 (예비)창업자를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패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고 빠르게 재기하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응급시 휴대용 석면 비상방지 표면경화제, 혁신 시제품 되다

청정나라 개발 제품, 조달청 시범사업 선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15일 완주군에 소재한 유한회사 청정나라(대표 장영희)의 '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상방지표면경화제'가 2020년 제2차 혁신시제품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2020년도 제2차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28개사 중 전북도 소재 기업은 유한회사 청정나라가 유일하며, 2019년도 주식회사 카본엑트(사계절 미끄럼 방지 탄소발열매트)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유한회사 청정나라의 '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상방지표면경화제'는 파손된 석면 함유 텍스에 도포 시 빠른 침투로 비산방지에 최적화 된 제품으로 휴대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 제품은 학교 등 석면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상용화 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 구매 후 공공기관에서 사

용, 그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 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 계약의 방법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

작년에 24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올해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혁신시제품 지정을 4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지역의 벤처·창업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2차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정 대상 및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혁신시제품 종합포털'(http://ppi.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 명품 수박, 수도권에서 맛본다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 정음·진안 수박 릴레이 통합관측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역농산물 출하 확대를 위해 명품수박으로 명성이 높은 정음 수박을 시작으로 16일부터 진안 수박 출하기간인 8월 9일까지 4주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예담채' 수박산지 릴레이 통합관측행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의 릴레이 통합관측행사는 단기행사로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계절농산물도 지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장기행사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전북도 농산물 홍보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금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됐다.

전북농협은 소비자 마케팅과 지역농산물 홍보관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6월말 기준 13개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 판매금액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지역농산물 출하 확대를 위해 명품수박으로 명성이 높은 정음 수박을 시작으로 16일부터 진안 수박 출하기간인 8월 9일까지 4주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예담채' 수박산지 릴레이 통합관측행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작년 1,613억 대비 올해 1,898억으로 17.7% 성장했다. 향후에도 도와 전북농협은 수도권, 영남권 대형유통업체와 통합 릴레이 관측행사로 지역농산물 판매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삼성 희망디딤돌 2기 사업 업무협약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전북도,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호이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115만건... "11~12월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금액을 확정해 오는 11~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

불금을 신청하고도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배포하는 한편 마을방송 등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단위 홍보도 추진한다. /뉴스

철도 전북본부, 전북자본센터와 폭염대비 '시원키트' 나눔 행사

한국철도 전북본부(본부장 김광모)는 15일 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와 함께 폭거노인 가정에 도내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꾸러진 '시원키트'를 전달했다.

'시원키트'는 기온차가 가장 높은 온도를 경신할 것이라 예상하는 올 여름을 대비하고자 모기퇴치 스프레이, 습기제거제 등 지역기업에서 생산한 물품과 식품 6종으로 구성된 선물박스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여름철 폭거노인 가정에 미약이나마 힘이 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한국철도 전북본부 직원들은 선물박스 하나 하나 직접 포장해 60세대에 전달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시대의 장기화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을 지역민들을 위해 앞으로 도 내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광모 전북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대하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북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5일 정음시 금봉동에 위치한 정음시노인복지관에서 'JB어르신 문화센터 제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JB어르신 문화센터 제3호 '문 활짝'

전은, 정음 금봉동에... 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내부환경 개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5일 정음시 금봉동에 위치한 정음시노인복지관에서 'JB어르신 문화센터 제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김동형 군산지역금융센터장, 서두원 정음시청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정음시 유진섭 시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정음시노인복지관 최상욱 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음시노인복지관은 주변일대 어르신들에게 미술, 한문서예, 사군자 등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과현상으로 인해 손상된

벽면과 바닥, 낡고 불편했던 책상과 의자, 부족한 수납공간 등 내부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습기에 강한 소재로 벽면과 바닥을 새롭게 시공하고, 책상과 의자, 수납장, 블라인드, 화이트보드 등을 교체해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먹물과 화선지를 함께 지원해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서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